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이곳 사역을 위하여 잊지 않으시고 늘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7 월 초부터 해변 교회 지역에 이상한 징후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어린이 성경 학교에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불참하기를 시작하고, 또한 매주 반갑게 맞아 주던 동네 주민들도 무관심으로 저희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들과 참으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와 지고 있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해서 이들의 마음을 닫게 만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교인들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해 보니, 마을에 위치한 기존 카톨릭 교회에서 저희들의 존재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동일한 시간에 유사한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마을 어린이와 어른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바로 이웃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포함한 거의 모든 모임에 참석했던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가 한 순간에 저희를 피하는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인 남편을 통해서 두 자녀까지 낳은 부인은 저희를 보면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듯 늘 반갑게 대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못한 시선으로 대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교회가 작년부터 마을 주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배와 관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여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우려했던 방해하는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꾀방하는 꾀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꾀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막 3:27,28)

이로 인하여 그나마 매주 열심히 참여해서 어린이들을 지도했던 선생님들마저도 몇주째 힘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카톨릭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도록 저희의 예배와 토요학교 시간을 오후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방학을 해서 마찰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과 기도속에도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까와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생업으로 소매 가게에 담배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담배를 배달한다고 늘 미안해 하는 '준' 형제는 바쁜 중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참여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출석을 한 이후에 벌써 5명의 목회자가 바뀌었고, 또한 이 마을에서 오래 살다가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했지만,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언제나 교회의 모임에 출석을 하는 신실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카톨릭 교회와의 마찰로 인하여 모두들 힘이 빠져있는 중에 어린이를 위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도 시작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두 자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동네의 수 많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뜻 밖의 이 요청은 카톨릭 교회와 마찰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명령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교인중에 한 중년 부인이 병으로 인하여 한 달 이상을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여 목사님 내외와 함께 심방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필요한 약들을 살 수 있도록 위로금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같은 해변 마을이지만, 걸어서 여러 마을을 지나야만 도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 없이 이 곳 주변을 방문 했지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지역이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할 말을 잃을 정도 이었습니다. 역시 이곳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 많은 아이들이 마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곳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이곳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급히 들어가야 할 지역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저희가 머뭇거릴 수 없음을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마을에 위치한 기존 카톨릭 교회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힘을 내어서 전과 다름없이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 밀려들어올 장애물 마다, 저희가 멈칫 거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러한 결정 이후 오래 계속될 것 같았던 카톨릭 교회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간에 중단되더니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마을 주민들도 다시 저희 교회로 예전처럼 나와서 자연스럽게 음식도 먹고, 웃는 낯으로 저희를 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해변 마을 토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는 '준' 형제가 사는 마을에서, 또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해변 마을 에서도 동일한 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3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아이들보다 아직은 구경하는 아이들이 더 많지만, 매주 숫자가 늘어서 새롭게 시작한 그 곳에서만 60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지경을 넓힐수 있도록 준비된 디딤돌임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함 3:2)**



8월 초에 저희 선교 Camp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2박3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기도 하고, 분야별 선교 전략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 역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이곳에 새롭게

파송을 받아 정착을 시작하는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남편은 의사, 부인은 학교 교사인 부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워싱턴 주에 있던 모든 생업을 정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와 함께 주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건강한 가정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파송을 받은 중국인 여자 선교사도 있습니다. 나이가 25세 밖에 안된 젊은 청년이고, 아직 새로운 사역지의 익숙치 않은 환경으로 인하여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녀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에서 1885년에 20대의 청년으로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사역을 하던 중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3개월 전 미국으로 치료차 떠났던 나이 많은 여 선교사님도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 자료들을 컴퓨터로 정리하는 일들을 도와 드리면서 여 선교사님의 건강이 몹시 연약함을 알 수 있었는데, 벌써 돌아 와서 떠나기 전 보다 더 많은 일들을 담당하게 되어, 제가 도리어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이에 따른 철저한 낮춤과 순종이 있기에 편안하고, 익숙해 보이는 자리를 놓고, 이곳에서 땅을 흘리고 있습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 43:1)**



## NEW SPIRIT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 36:26)

New Spirit 사역은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황량한 이 곳에서 힘겹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새 영을 불어 넣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장학, 구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라나는 이곳 어린이들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깨어진 가정을 답습하고,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목적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이들이 회복 될 수 있을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에게 새 영을 불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New Spirit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선별하여, 학부모와 면담을 거친 후에,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New Spirit 프로그램은 매주 교회에서 진행되는 토요일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와 더불어 학부모 또한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약속 받고 있습니다. New Spirit 사역을 통해 전 가족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교회에서는 선별된 학생들을 말씀으로 특별히 양육하며, 이들의 부모와 매주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하고, 해당 학교도 직접 방문하는 등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온전히 연결하는 전인 종합 양육을 지향 하고 있습니다.

- 교회 중심 (Church Based)
- 가정 중심 (Home Centered)
- 학교 중심 (School Focused)

New Spirit 사역은 금년 6월, 10명의 학생들로 시작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20명이 이 사역을 통하여 학비 및 제반 비용을 보조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지원을 받아 원하는 Waiting List에는 약 6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중에 계속하여 학생과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도 요청

#### 1. 도서관 설립

현재 해변 마을 3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와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 2곳은 교회가 아닌

야외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집에는 책상도 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책이 구비된 도서실과 이들이 접하기 어려운 컴퓨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을 돌보며,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서관 설립을 위하여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도서실이 온전한 예배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 2. 구제

배고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너무도 미흡하여 도리어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최소한 교회에서만이라도 이들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합니다.

#### 3. 동역자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는 교역자 부부와 2명의 헌신된 신학생 청년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미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학업도 과중한데,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믿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곤핍하지 않도록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New Spirit 사역에 꼭 필요한 다양한 동역자들을 계속 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4. 후원자

이 일을 통하여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분명히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NEW SPIRIT FAMILY

A - 7



이름	Jirelyn Vilanor
별명	Bengbing
성별	여
생년월일	1995년 6월 14일
학년	5
부모 직업	어머니—가정부
형제 수	4

### 자기 소개 및 기도 제목

1. 장래에 간호원이 되고 싶습니다.
2. 산수 공부와 배구를 좋아합니다.
3. 기도 제목
  -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 아프지 않도록
  - 엄마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 교회에 계속 다니며,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 학생 소개

16살의 꿈 많은 소녀이지만, 이제서야 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을 했습니다. 홀 어머니께서 가정부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물론 동생들도 제 나이에 맞추어 학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로부터 소위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 - 19



이름	Glen Baylosis
별명	Dodong
성별	남
생년월일	?
학년	2
부모 직업	무직
형제 수	4

### 자기 소개 및 기도 제목

1. 커서 군인이 되어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돕고 싶습니다.
2. 농구를 좋아합니다.
3. 기도 제목
  - 집에 돈이 많도록
  - 엄마가 건강하도록
  -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 학생 소개

자신의 생일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배고픔에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손가락 한 마디를 잘리는 학대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뿌리 깊이 박혀 있고, 특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끼니 걱정이 우선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아직 쉽지 않지만, 교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착한 어린이입니다.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